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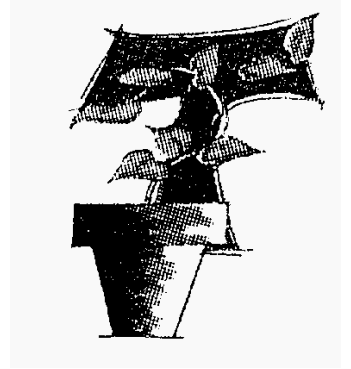
## 마음에 심어진 재속 프란치스칸 성소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맘 때가 되면 정원은 채소와 과일의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얻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을 들여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솟아 냅니다. 그리하여 노력의 결과를 얻는 것이지요. 참 좋습니다.

우리를 계속 가꾸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우리의 성소)를 심으셨습니다. 당신의 성소가 피었는지요? 많은 결과를 맺었습니까? 물(매일 기도, 영적 독서, 형제회)은 잘 주고 있습니까? 잡초(신경 쓸 일, 죄, 게으름)은 잘 솟고 있는지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이는 너희가 깨쳐서 나를 믿고 내가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 43:10) 우리가 선택되었다면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이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 우리 마음에 씨가 심어진 것 처럼 다른이들의 마음에도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다른이의 마음에 씨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Q(참석하던 않던) 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이나 다른 행사를 통해 여러분 성소를 나누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선 우리 마음에 심어진 씨가 자라나 활짝 피게 되면, 다른이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성소 힌트: 형제회 정보(일반 정보나 단위 형제회 연락처)가 담긴 북마크를 만들어 보세요. 이 북마크를 매일미사책에 끼워 놓거나 성당에 비치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주보에 실어보세요. (마이클 모레이, 재속 프란치스코회 천사의 성 마리아 형제회, St. Johnsbury VT)

여러분의 의견을 [OFSVocationsCommittee@gmail.com](mailto:OFSVocationsCommittee@gmail.com)로 보내주세요.

“...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오늘을 살며, 매일 복음을 생활하며, 서로 돕도록 스스로 도울 때... 이미 그들의 가슴에 심어놓은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의 그들의 성소를 인식하게 됩니다.” 국가 성소 기도, 마리앤 크로스비.